

대 회 사

오늘 제6회 전국양돈인대회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생업의 바쁜 일손을 놓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전국의 양돈인 지역 대표자 여러분!

이 행사를 축하·격려해 주시기 위해 바쁜 농정과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신 농림수산부장관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계에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마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돈업도 예외일 수는 없어 개방화·자유화·민주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맞아, 금년으로서 제6회를 맞이한 양돈인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의미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을 넘지 못하면 다시 '60년대의 양돈업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전환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큰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은 이러한 장벽들을 손을 잡고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으며, 개방압력 수단으로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마찰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농민의 생존권과 삶의 공간 침해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량적 수치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과 농민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하여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농민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교훈을 배웠기에 수입개방 압력 등 새 시대에 적응하는 양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물 생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생산·유통·저장·가공·소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자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선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수입을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축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한 일부 재벌기업이 농민의 고유영역인 양돈에 진입하여 농민의 소득원을 뺏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4년도에 재벌기업의 양돈참여를 규제하고 영세부업 양돈농가의 소득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축산법이 개정되었지만 재벌양돈은 각종 특혜로



전동용 회장

보호되었고, 보호되어야 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각종 규제로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양돈업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중소기업들의 자율적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재벌의 신규 양돈 참여를 강력히 규제하고 양돈업 허가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불균형적 양돈산업 구조와 불공평한 분배 등의 구악을 일소하고 생산에서의 효율성과 분배에서의 공정성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저해되는 각종 악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양돈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양돈사료의 국내시판가격은 수입원료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유통시 경쟁국에도 없는 높은 부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료수입쿼타제도, 농장 자가배합 사료 불허 등으로 인해 20~30%의 생산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사료수입쿼타제도와 곡류배합비율 제한을 폐지하며 농장 자가배합사료 공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사건축과 관련된 까다로운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물가격안정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도축장과 도매시장의 시설 근대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축부산물의 경매제도를 실시하고 지육의 전자경매실시 및 계류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네제, 양돈인들의 단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파동은 자율적 생산조절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큰 불이 나서 집밖으로부터 막 타들어 오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물을 안 가져오면 그 누가 불을 꺼 주겠습니까?

국제화시대에, 산업사회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도 어려운 이때, 우리 양돈인들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과 우리가 이 산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새로이 하여 우리 모두 타들어 오는 이 모든 불을 꺼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대주산업(주)의 정은섭 사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8년 11월 17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 동 용